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 街 134-58
 電 話：923-4372

石材產業法(案) 保留키로 — 經濟閣議

— 全林業人的 團合으로 끝까지 沮止해야 —

그간 動力資源部가 立法을 推進하여 왔던 石材產業法(案)에 대하여는 지난 11.6 經濟長官會議에서 保留키로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10.15 本誌 第 8 號를 통하여 本案 立法에 대한 우리의 反對意見을 分明히 밝힌바 있거니와 別途로 書面을 通하여서도 該當部處인 動力資源부와 民正黨 政策委議長 및 同 商工分科委員長에게도 強力히 建議한바 있다.

本案 立法에 대하여는 事案의 重大性으로 보아 全林業人은 물론, 良識있는 人士들의 비상한 觀心 속에서 그 歸趨를 注目하여 온 터이다.

그法案의 推進이 行政府 自體에서 一但 保留되었다고 하니 우선은 多幸한 일로 받아드릴 수 있으나 否決이 아닌 “保留”라는 點에서 언젠가 또다시 이問題가 學論될 수도 있다는 點을 排除할 수 없어 개운치 않은 餘韻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山林이 푸르러진 것은 지난 수십년간 山林關係者 뿐만아니라 全國民이 뒷받침하여준 德으로 온갖 刻苦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부터는 本格的인 育林으로 林產資源增殖에 拍車를 加할 時期인 것이다.

그런데 같은 政府當局의 立각에서 山林破壞를 前提로한 開發爲主의 立法을 推進한다는 것은 山林의 公益性和 山林破壞에 따른 後遺症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全然 度外視한 處事로 納得이 가지 않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採石權 設定이 아무리 山林 所有主와의 協議를 前提로 한것이라 하더라도 山主와의 意思가 合一이 되지 않을 경우는 主務長官의 裁決權만으로도 採石權 設定이 可能토록 한다는것은 分明 私有財產權의 侵害라는 것을 強調한 바 있다.

一般 山林이 모두 그러하지만 特히 各種 保安林은 그 公益機能의 重要性 때문에 現行 法下에서도

가득이나 規制事項이 많아 私有財産權 行使에 不利益을 받고 있어도 使命感과 理解로서 甘受를 하고 있는터인데 이러한 保安林마저도 採石場化할 수 있는 素地の 立法을 推進한다는 것이니 한마디로 語不成說인 것이다.

우리는 既히 本誌를 통하여 그不當性を 指摘하였으므로 더 以上の 再論을 避하겠으나 現行 制度에 不合理的 點이 있다면 山林主管部署에서 適切히 改定 補完하고 本案 立法推進은 철회하여 줄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또 山林當局도 이問題가 再論되지 않고 매듭지어 지도록 努力을 促求하는 바이며 山主 뿐만아니라 全林業人은 한결같은 團合된 힘으로 끝까지 이를 沮止할것을 呼訴하는 바이다.

租稅減免規制法 91年까지 時限延長

— 山林稅制 部門도 一部包含 惠擇 —

(讓渡所得稅 , 贈與稅 , 所得稅)

國會는 지난 12.2 내년도 政府豫算案 議決과 함께 91년까지 時限을 延長하는 內容을 主要骨字로 하는 租稅減免規制法을 改正하였는데 그중 山林關係部門을 拔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不在地主가 1986年末 현재 보유하고 있는 一定規模의 農地, 草地, 山林地를 自耕하는 兄弟 姉妹들에게 讓渡 또는 贈與할 때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贈與稅를 免除함 (第 67 條의 6,7)
- 自耕하는 直系尊屬이 營農 1子女에게 一定規模의 農地, 草地, 山林地를 生前 贈與時 贈與稅를 免除함 (第 67 條의 8)
- 農漁民등의 融資書類에 대한 印紙稅免除 限度額을 融資金額 500萬원에서 1千500만원 까지로 引上함 (第 81 條第 5 號但書)
- 第 38 條 (山林開發 所得에 대한 所得稅등의 免除) 第 1 項중 “內國人 (木材를 原料로 하여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과 그法人의 寡占株主가 出資한 法人을 제외한다)”를 () 內書를 削除함으로써 法人도 惠擇을 받도록 되었다.

篤林家에 대한 支援施策 積極發掘

— 制度改善등 必要한 措置 講究토록 —

山林廳에서는 山林을 착실하게 經營하고 있는 山主를 적극적으로 찾아 篤林家로 認定, 經營의 自律性을 부여하는 한편 政府財政支援과 사기양양을 통해 私有林 經營의 先導者로 育成하고 있으나 그 便益對策이 最一線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本會에서는 機會 있을때마다 當局에 建議를 계속하여 왔던 터이다.

그런데 今般 鄭採鎭 山林廳長의 부임을 계기로 制度改善등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 最一線에서 實質적으로 잘 履行이 되도록 指示됨에 따라 篤林家는 물론, 一般山主들에게 鼓舞的이고 期待를 크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계국에서 우선 檢討하고 있는 便益支援施策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營林計劃認可
 - 篤林家가 作成하는 營林計劃의 경우 伐採量의 우선 配定措置
- 施業申告
 - 認可된 營林計劃에 의한 諸般施業時는 事業物量에 불구하고 申告畢證 交付없이 申告만으로 實行토록 關係 規定改定
- 各種財政 積極支援
 - 各種養苗, 造林, 保護, 育林, 施設등에 必要한 事業費는 他人에 우선하여 融資 또는 補助될 수 있도록 措置

量的 造林에서 質的 造林으로

— 87년도 造林 47,800ha 하기로 —

山林廳은 그동안 推進해온 量的 造林에서 탈피, 質的 造林으로 전환하여 내년에는 長期樹 위주로 植栽토록 하였으며 育林作業 物量도 크게 擴大하고 育林技術의 向上 普及에 力點을 두기로 하였는데 각 市道別 事業物量은 別表와 같다.

'87 造林 및 育林作業計劃量

(單位 : ha)

市道別	合計	造 林			育 林					造景造林 (千本)
		小 計	植栽造林	天然林 保 育	小 計	追 肥	풀베기	稚 樹 가꾸기	덩굴除去	
合 計	444,843	72,510	47,840	(150) 24,520	372,333	(69) 135,665	146,799	73,300	16,500	3,500
市道計	415,588	66,174	46,104	20,070	349,414	131,815	136,799	65,600	15,200	3,500
서 울	410	10	10		400	200	200			100
釜 山	737	107	57	50	630	125	155	200	150	200
大 邱	135	25	25		110	30	30		50	100
仁 川	779	70	50	20	709	295	414			400
光 州										50
京 畿	48,271	5,751	3,951	1,800	42,520	13,980	18,900	6,340	3,300	650
江 原	60,181	10,791	6,991	3,800	49,390	15,730	22,580	8,800	2,280	300
忠 北	36,730	6,140	4,340	1,800	30,590	11,220	11,340	6,200	1,740	200
忠 南	36,290	4,080	3,080	1,000	32,210	13,790	11,000	6,650	770	350
全 北	35,530	5,280	3,480	1,800	30,250	11,650	10,500	6,930	1,170	250
全 南	61,160	11,300	8,900	2,400	49,860	21,950	18,770	7,450	1,690	250
慶 北	71,870	11,350	7,550	2,800	60,520	22,190	24,350	11,700	2,280	250
慶 南	51,930	10,150	6,550	3,800	41,780	17,730	15,100	7,180	1,770	250
濟 州	11,565	1,120	1,120		10,445	2,925	3,370	4,150		150
營林署	29,255	6,336	1,736	(150) 4,450	22,919	(69) 3,850	10,000	7,700	1,300	
中部	12,361	2,275	654	1,450	10,086	(33) 1,530	4,188	3,835	500	
東部	7,582	1,869	369	(50) 1,450	5,713	(34) 920	2,359	2,000	400	
南部	9,312	2,192	713	(100) 1,550	7,120	(2) 1,400	3,453	1,865	400	

日本林業視察記

會長 韓 榮 錫

(前號에서 繼續)

5. 22日 15:00 會津若松(아이즈와가마쓰) 오동나무 名產地視察

福島県大沼郡三島町大字宮下 西沼西部森林組合桐工場

組合長 二瓶勤吉氏, 會津若松林業事務所 經營課長 佐川宗一氏 案内, 工場附近 오동나무林地에는 나무가 아직 幼木으로서 흉고 直徑 20 cm 内外로 보였으나 工場内に 들어서니 30 cm 이상의 板材를 空氣가 소통되도록 野積하고 있다.

안내를 따라 本館内に 들어서니 오동나무로 만든 小器物과 옷장의 陳列이다. 日本사람이 탄즈(단즈)라고 예로부터 사용해온 의개그릇으로 오동나무 原色の 精巧한 제품들이다. 오동나무는 大氣濕度 조절기능이 強하고 불에 강하며, 쯤벌레가 전혀 덤비지 않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하며 1台제작에 1㎡소요, 1台값은 60~70万円, 高級品은 230万円까지, 東京百貨店에서는 350万円에 販賣된다고 한다.

이의 素材는 통나무로 1年, 板材로 1年, 倉庫속 그늘乾燥 1年으로, 3年 묵혀서 製品을 만든다하며 立木 40~50年生을 伐採하여 사용한다 하고 年輪이 높은 나무일수록 高級品이 된다는 것이다.

邊材細目部分을 集成材柱目으로 3面에 쓰고 있으며 芯材部는 板目으로 設합, 뒷面등에 쓰고 있다. 고흔 페-파(砂布)로 面을 닦아내고 織物類로 문질러대니 자차분하게 곱어져 있다. 그위에 ヤサブシ(야사부시)라는 種實油로 여러번 칠한다고 한다. 無光澤 透明劑, 工場規模는 200坪정도, 月産 50台, 高級品 12~13台 정도를 注文生産, 40~50年生의 原木은 直徑 40~50 cm, 組管管内 30万本, 이 옷組合들에서 50万本을 育成하고 있다한다.

組合員은 100名, 本工場은 官費 80% 補助로 創設, 組合員은 原木을 査定價格으로 納品하나 年度決算에 의하여 利益金을 配當, 오동나무植栽는 바람이 심하지 않은 平地래야 하고, 肥沃하며, 排水가 잘되는 땅이래야 한다함(植栽管理要領資料를 받음)

日本の 오동나무生産은 需要量의 10%로 90%를 브라질, 韓國등에서 輸入하고 있으나 幼木, 材質不良등으로 會津産 1㎡당 22万円에도 팔지를 않는데 브라질産 2万円, 韓國産은 3万円으로 低級用에 使用한다 함. 우리가 오동나무生産 15年을 보고 있음은 考慮돼야할 것이며, 日本사람들의 좋은 物品만들기 精誠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6. 23日 09:00 鈴木虎吉(스즈기도라요시)氏 林地訪問

福島県田村郡大越町大字 早稻川

山林面積 147.5ha : 삼나무林 92.9, 편백나무林 15.3, 赤松林 27.7, 潤葉樹林 11.6, 그중 8ha를

福島県林業試験場委嘱 育種試驗을 하고 있다한다. 年令 61 歲

山林經營 3 代에 이르며 11 令級이상인 17.8ha, 28 歲 때 父親他界 이후 30 餘年을 山林經營에 몰두, 誠實한 經營과 成績으로 農林大臣賞, 各機關의 表彰을 많이 받고 各種 林業團體에 任員, 委員에 任하고 있다.

林地의 立地的條件은 높은 山脈을 멀리하고 있는 野山地帶로서 主峯이 海拔 570 m로 흡사 우리의 京畿道와 忠淸南道와 같은 곳으로 樹木이 마디게 자랄 곳이다. 이地帶는 農耕地帶요 人口가 密集되어 살아온 곳으로서 建築과 燃料등으로 山林이 많이 개겨져 척박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鈴木氏는 最大限의 努力으로 優秀營林을 하고 있는 것이다.

林道가 ha 당 60 m, 주요 裝備로는 チェイ소-4, 下刈機 2, 施肥機 2, 雪起機 2, 木登機 15, 植穴機 1, 등으로 人力省力에 注力하며 표고生産도 年間 長3尺 5,000 本식을 栽培하며 乾燥機를 2 臺나 保有하고 있다.

鈴木氏는 5 高林業이 所信이며 高蓄積, 高品質, 高生産性, 高技術, 高公益性을 指向한다고 한다. 이를 실천함에 있어 가지치기에 無節上材를 만들기 위하여 氏는 칼(日本은 ナタ=나다라고 우리의 도끼와 낫의 中間形으로 길쭉하며 약간 안으로 휘어있음)날을 重視한다. 가지를 침에 있어 단번에 끊고 보드랍게 쳐져야지 두번, 세번 쳐서 자국이 꺾끄럽게 되거나 톱으로 가지를 짜르면 病菌侵入, 無節上材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좋은 칼날이면 돈이 아깝지 않고 또 제일좋은 솥들을 쓴다고 한다.

鈴木氏의 細心한 姿勢를 讚揚하지 않을 수 없다.

7. 日光(닉고-)의 風光과 東照宮(도-쇼-구우) 栃木県

鈴木氏林地에서 同日 15:00 경에 日光에 도착 途中은 山林이 부실, 男体山(난타이상)가 가까이 이르러야 삼나무林이 우거져 있으며 生長勢가 좋다. 山에 오를수록 편백나무도 보인다. 높이 오르니 삼나무 편백나무林이 없어져 가고 岩壁이 보이는 濶葉樹林이 시작되는데 岩石地이므로 林相은 부실하다. 때마침 단풍期라 景觀이 아름답다.

中禪寺湖(츄젠지호)를 안고있는 男体山은 海拔 2,484 m, 湖水水面은 1,268 m, 中禪寺가 있고 유명한 華嚴瀧(게공노다끼)가 있다. 山姿秀麗하고 湖水가 淸澄하다. 참으로 名勝地다운 곳이며 日本 사람들이 자랑할만하다.

翌朝 24 日 東照宮을 向하여 出發, 그러나 意外로 男体山의 沙汰現象을 보았다. 누더기 옷을 기어 입은 것 같같이 沙汰地에 세멘트面이 깔려있으며 이내 넓은 沙汰現場에서 砂防工事を 하고 있는 工事現場을 보았다. 日本의 砂防工事, 가장 골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막상 現場을 보니 砂石崩壞가 어마어마하며 딱한 생각이 든다.

東照宮에 도착은 10:00 巨木들의 삼나무 숲속이다.

東照宮은 德川家康 (도구가와이에야스) 를 받드는 祠堂宮으로서 國家를 安定시킨 元勳이요, 關白(감바구) 이니 征夷大將軍 (세이이다이쇼 - 궁) 이니 하는 事實上的 日本統治者였으므로 天皇賜額의 節次로 宮의 呼稱을 갖게된 것이다.

東照宮은 規模가 큰 것은 아니나 당대의 建築技術과 藝術性을 高度로 살리고져 國力을 기울였으며 金판 투성이의 建物裝飾과 造形 彫刻의 濃縮的인 建物이다. 朝鮮館도 있으며 朝鮮에서 보내온 梵鐘이 있고 館內에도 보내온 美術品이 所藏되고 있다한다.

朝鮮朝는 初期에 倭寇鎮壓을 위하여 日本과의 宣撫善隣外交를 도모하였고 日本은 鎖國主義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찬란한 朝鮮文化를 받아드리려 親善外交를 펼쳐왔다.

다만 豐臣秀吉 (도요도미히데요시) 는 壬辰亂을 일으켜 朝鮮을 焦土化시키고 自國도 100年間을 궁핍에 몰아 넣었으나 德川家康는 朝鮮侵略을 옹치 못한 것으로 반대의사를 가졌었으며 天下統一后 朝鮮과의 親善外交를 다시열어 朝鮮의 學問과 文化를 대대적으로 받아드리려 日本의 近代文化를 開花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執政후 약 200年동안 朝鮮에서는 12차례나 300~500名이나 되는 各分野의 人材를 朝鮮通信使 隨行員으로 派出하였으며 日本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많은것을 배워왔음은 兩國史記에 소상히 나타나 있는 바이다.

어쨌든 이 豪華로운 殿閣의 創建은 德川家康의 威嚴을 永世에 빛내고 德川家의 治政을 千歲에 누리자는 底意로 풀이되나 德川家康는 日本의 聖雄이요 우리에게도 好感이 가는 人物이다. 참을성있고 때를 잘 이용하며 義理와 德으로 사람을 承服시키는 日本의 偉人이었다.

8. 버섯研究의 森 (모리) 産業株式會社訪問

群馬縣桐生市 (군마젠기리우시)

東照宮을 觀覽后 群馬縣을 향하니 도중 삼나무林地가 좋은곳도 있기는하나 大体로 花崗岩地帶로 山林은 부실, 石材生産이 곳곳에 보였다.

森産業株式會社에 到着은 午後 3시

宇津野芙蓉朗 (우쓰노후지오) 研修課長 案内로 狀況室에 들러 會社沿革과 각종 버섯菌培養 過程說明과 우량품종을 많이 개발해 나간다는 자랑이다.

이會社는 버섯種菌開發과 種菌販賣를 크게하고 있는 企業체로서 日本에서 제일 클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유명한 會社이다. 生産機資材도 生産販賣하고 있다. 機材중 특이한 것은 在來式 接種方法이던 機械打擊種菌函入식으로 人力省力을 企圖한 機械다. 다시말해 딱딱한 種菌棒을 만들어 단번에 때려박고 스킨로폴마개도 생각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機械값이 비싼것이 흠절이다.

우리는 種菌生産內容을 보러 온것이 아니라 全天候 표고施設生産現場과 開發된 新品種을 보러왔다 하니 施設에 간단한 設計略圖를 줄뿐, 當社에서는 全天候 施設生産現場이 없다고 하고 아쉬움을 표한다. 多量收穫할 優良品種이 많다고만 한다. 우리는 失望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건너받은 圖面을 참

작하여 우리 技術陣으로도 全天候生産이 어려울것 없으리라고 생각되었다. 本件視察은 失敗 다음機會에 보기로 한다.

東京을 향하니 群馬平野도 關東平野에 속하지만 넓은 平野 그러나 工場과 都市, 農村이 뒤범벅 일키는 어지러운 平野

9. 東京觀光 25日 土曜日

一行은 日本 뉴-디즈니랜드, 宮城앞을 觀光, 會長과 西海開發社長 權五振氏는 우리協會와 親善結緣을 맺고 있는 日本林業經營者協會를 訪問 吉田雅文 專務理事와 兩國林業發展에 관한 歡談을 나누었다.

10. 富士山(후지산), 箱根(하고네) 一帶의 山林

26日 日曜日 富士山을 향하여 出發, 한없는 東京市內를 빠져나가 山梨縣(야마나시겐)에 깊숙히 들어섰다. 農山村地帶에 이르므로 造林地가 보여간다. 삼나무들이 쓸쓸이 자라고 있다.

富士山麓을 서서히 올라가니 삼나무地帶, 삼나무, 편백나무 混淆地帶, 赤松地帶順으로서 나무가 늙히 잘 자란다. 위로 올라가니 잎갈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향나무, 가문비나무 등이며 올라갈수록 樹勢가 약하며 맛자란다.

海拔 2,400 m라고 하는 최종 休憩所에 이르니 林相은 스러져가며 거먼돌山的 富士山이 頂上까지 올려다 보인다. 3,776 m의 巨山으로 數億年前부터 噴出을 거듭하여 높아진 山이라고 한다. 사방에서 보아도 똑같은 모습으로 日本의 靈峯으로 日本人은 추앙한다.

山頂에는 흰눈이 부채살같이 덮여있다. 금세라도 頂上에 오를 수 있을것 같은데 登攀專門家래야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세찬바람이 분다. 登山客들은 몸을 움추려가면서도 카메라대기에 餘念이 없다.

富士山頂은 年中 개일때가 적어서 日本사람 自身이 몇번 찾아와도 구름, 안개, 비, 눈때문에 頂上의 모습을 올라보이 보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손님들은 뚜렷한 雄姿를 보게되니 福받으신 분들이라고 안내양이 추켜댄다.

山을 내려와 箱根街道를 접어드니 삼나무숲이 울창하게 잘자란다. 箱根市에 접어들수록 더욱 왕성하다. 箱根市에 도달하니 청청한 湖水, 芦湖(아시노고)라고 불리우는 湖水가에는 觀光客의 宿泊場所가 즐비하며 富豪들의 別莊과 같은 建物들도 많이 보인다. 觀光과 休養의 깨끗하고 조용한 都市다.

箱根는 活火山의 熱氣가 치솟아 하얀 김을 몽게몽게 내뿜는 現場도 볼 수 있고 水質이 좋은 溫泉水가 있어 有名한 溫泉場이다. 一行은 中食도 들고 湖水에서 배를 타고 火山現場까지 돌아보았다. 果然 名勝地이다. 우리도 나무를 잘길러 아름다운 山間溪谷에 이리한 觀光休養地를 많이 造成하였으면 하는 感想에 젖어왔다.

11. 京都(교-도) 北山林業地帶視察

27日 月曜日, 熱海(아다미)에서 一泊한 一行은 아침 10:10 新幹線을 타고 京都에 12:30 到着 二條城(니조-조-), 平安神宮(헤이안징구우), 清水寺(기요미스데라) 등을 觀覽하였다. 二條城의 日本式 연못庭園, 平安神宮의 中國式 建物樣式과 4角의 넓은 안마당은 印象的이었다.

28日 火曜日 京都府 京都林務事務所 技師 吉田克己(요시다가쓰미)氏 案内로 京都府 北山林業地帶를 視察하였다.

삼대 같이 백백이 들어선 삼나무林, 이 地方에서는 굵고 큰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直徑 3.5~4寸 정도의 가는 통나무로 기장 9尺의 日本式住宅 床間(도고노마)의 기둥을 만드는 곳이다. 日本 사람의 床間은 가장 존중되는 곳으로 家寶, 書畫등을 장식하며, 예전에는 카미타나(가미다나)라고 선반을 얹고 그위에 조그마한 집(神社의 축소)모양을 나무로 만들어 안쳐놓고 아침 저녁 손백을 세 번치며 기도를 한다. 無事安寧을 비는 土俗信仰이다.

이 床間에 소용되는 나무는 곧으면서도 울퉁불퉁 奇形的 形態를 갖추어야 값이 나가는 것이나 近者 그러한 天然木이 없으므로 立木에다 쇠붙이, 플라스틱등의 模形을 대고 철사로 잡아매 나무가 자라면 울퉁불퉁해지는 人爲的奇形木을 만들고 있다.



北山 林業의 삼대밭 같은 삼나무林
強度의 가지치기로 通直 完滿한 高級丸太木을 生産한다.

이에 소용되는 나무는 40~45年生木, 지금은 收支의 惡化로 35年生으로 充當코져 速成育成을 試圖해 간다고 한다. 집집마다 나무껍질을 베긴 하얀 나무기둥을 말리고들 있다.

그러나 이고장은 삼나무만 있는것이 아니라 赤松, 潤葉林도 있어서 각종 木器物을 만들고, 盆栽와 生長抑制式 庭園樹도 만든다고 한다. 人家들이 좋은 집으로 潤澤이 감도는 것을 보니 林業生産收益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는 木材利用加工 展示館이 있다. 삼나무 無節上材로 構成한 建物内部 構造는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小器物들도 精巧하였다.

12. 奈良(나라)에서 大阪(오-사카)

北山森林地帶에서 11:00 奈良로 出發, 平野地帶로서 간혹 山이 보여도 山林은 부실, 13:00 奈良 到着. 東大寺(도-다이지)를 觀覽, 近來까지 世界에서 제일 컸다는 靑銅製佛像, 寺刹의 규모도 크거니와 壯嚴한 佛像에 壓倒感을 느꼈다. 奈良는 百濟文化가 꽃피운 곳, 佛像도 百濟人의 손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日本에는 靑銅冶金技術이 없었다고 한다. 寺刹앞 公園에는 사슴떼들이 平和로이 거닌다. 15:30 大阪로 出發 역시 沿道의 山林은 부실하다.

29日 水曜日 大阪城視察

東京의 宮城과 같이 城周圍는 堀(호리)라고 하는 水路를 파놓고 있다. 敵의 기습을 막기위한 防禦 正이다. 日本의 城은 대략 이러한 것으로 우리와 같이 都邑全體를 감싸고 도는 큰 城郭은 없다. 外侵이 없고 國內的으로 勢力爭奪의 싸움뿐이었으므로 勢力을 發揮하는 指揮本部로 安全保護의 手段뿐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城은 豐臣秀吉의 本據로 殿閣안에는 그의 史蹟과 遺品들이 陳列되어 있다. 朝鮮을 어지럽게한 奸雄, 그는 子息代도 곱게 넘기지 못하고 德川家康에게 天下를 뺏기고 말았다.

12:40 서울向發 KAL機便으로 歸國

13. 視察의 맺음

日本林地는 海拔 2,000 m內外 이상의 山脈속에 壤土의 推積層이 깊고, 颱風의 影響을 크게 받지않는 林地에는 樹木이 말할 수 없이 잘자란다. 그러나 全盤的으로는 林地基盤이 좋지만은 않아서 砂防工事が 힘들고 樹木生長이 마디다. 또 颱風과 暴雨의 障礙要因이 겹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全山林面積 平均 ha當 100 m를 造成하고 있는것은 國民의 心血을 기울인 努力이요, 國家의 誠實한 施策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讚辭를 아낄 수 없다.

이에 비견하여 우리의 林業條件은 좋은 편으로 日本이나 獨逸林業技術人들이 말하고 있으며 또 樹木의 生長表를 보아도 우리가 앞서고 있는 樹木이 많음을 볼 때 우리의 林業成功은 오직 國民的 自覺이요 爲政者들의 覺醒에 의한 確固한 投資와 林業人들의 誠實한 山林經營에 달려있다고 말할지 않을 수 없다. 끝.

林學界의 泰斗 玄信圭博士 永眠하시다

— 구슬비 내리는 가운데 林業人葬으로 永訣 —

林學의 泰斗 香山 玄信圭 博士가 지난 11.21 새벽 76歲를 一期로 老患으로 永眠하셨다.

永訣式은 11.24 11:00 초겨울의 구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林友會 會長 金榮俊氏를 葬禮委員長으로 하는 林業人葬으로 하여 300餘 吊客이 參席한 가운데 林木育種研究所에서 엄숙히 거행되었고 遺族의 意思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基督敎會 墓地에 安葬되었다.

本會 顧問이시기도한 玄博士님의 業績이나 功績에 관하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관계로 省略하고 林友會 會員이고 民正黨 山林小委員長인 李在石氏의 追慕辭로 哀悼의 뜻을 함께 表하고자 합니다.

香山 玄信圭 博士님을 追慕하며

林友會員 李 在 石



故 玄信圭博士

1986년 11월 21일 새벽에 이 지구촌에 林學界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임학자요, 과학자이기전에 진정한 교육자요, 인생의 지도자이신 香山 玄信圭 박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에 우리모두는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찌기 청운의 뜻을 품고 휘문고보와 수원고농을 거쳐 일본 九州 帝大農學部 林學科를 나오시고 지금 청량리에 있는 임업시험장과 九州帝大 임학연구실을 오가시면서 우리나라 참나무류 樹種·품종 식별법 논문을 모교인 九州大學에 제출하여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좀처럼 어려운 농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해방을 전후한 혼란기에 日人들이 남기고간 임업시험장을 접수받고 초대 임업시험장장직을 맡아 시험장을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임학계에 인재부족을 통감하여 시급한 인재육성을 위해 수원학교로 돌아가셔서 1977년 정년까지, 잠깐동안 농촌진흥청장 재임기간을 빼고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30여년간 임학도 1천여명을 길러 내셨습니다.

그때 길러낸 제자들이 산림행정기관 또는 임업시험장 혹은 학계 및 임업 실업계에서 해방후에 황폐된 조국산야를 복구하는데 큰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발표하신 주옥같은 연구논문이 1백여편이 넘어 이 논문이 국내외에 파급되어 우리 林學과 임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 해방후에 우리 산림에 무질서한 도남벌이 자행되어 우량형질의 母樹가 문제점이라는데 착안하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임목육종연구를 마치시고 돌아오신후 임목육종연구실을 신설하고 선발 교잡 등 각종 임목육종 결과 많은 새로운 수종과 품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소식이 세계각국에 알려져 임목육종의 學理論이나 실제에서 우리나라가 어느나라 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고 玄僑圭 박사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도 세계각국의 사람들에게 더 잘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 정년으로 서울대학교를 떠나시는 고별 강연에서 「내가 정년이 되어서 이 강단을 떠나지만 아직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여생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준 조물주인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韓國이 낳은 世界的 林學者 林木育種研究 큰업적 남겨

그래서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자나깨나 이나라 산림을 위해 연구실에서 현미경과 책과 싸우시다가 76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인생을 봉사와 희생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인생은 유한한것이지만 뜻밖의 비보에 접한 문하생은 여러가지 지난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자유당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玄박사님이 서울에 있는 公報院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와서」라는 연재를 가지고 강연을 한일이 있었읍니다.

玄박사님은 「비도 오지않는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은 수백척 지하수를 퍼올리고 정으로 돌을 깨고 조림을 해서 국토를 가꾸고 있는데 비도 적당히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를 가진 천혜의 조국강산이 사람 잘못으로 주인없는 공동산같이 벗겨져 홍수와 한해가 연중행사처럼 일어나고 있으니 산림녹화가 곧 조국재건의 첫길」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호소력있는 말씀을 이곳에 다 옮기지 못하지만 청중이 모두 손수건을 꺼내 울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에게 조국애를 배웠읍니다. 참으로 선생님은 바쁜 인생이었습니다. 임학회장, 육종학회장, 농업과학회장인데다 국제학회대회에 한국대표로 동분서주 하시면서 국제간 기술교류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교훈은 우리 가슴에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부도님보다 더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선생님은 가셨어도 선생님이 육종한 나무들이 조국의 강산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주신 교훈을 조석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뒤를 따를것입니다.

이세상에서 못다하신 일들을 우리 후학들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서 고이고이 잠드시옵소서.

'86 模範篤林家 4 名 새로 誕生

— 優秀篤林家에 對한 表彰도 —

山林廳은 12.22 金년도에 새로운 模範篤林家로 4 名을 選拔하여 認定書를 交付하고 激勵金을 傳達할 豫定이다.

이는 篤林家를 育成하는 方針에 따라 “篤林家育成要綱”의 審査基準에 의거 每年 山林廳이 模範의인 山林經營人을 選拔하여 激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 새로 認定받게 될 模範篤林家는 모두 本會 會員들이다.

또한 이날 優秀篤林家 7 名에 對한 內務部長官의 表彰도 山林廳長에 의하여 傳授될 豫定인데 새로 認定되는 模範篤林家 및 表彰 對象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 새로 認定되는 模範篤林家

道 別	住 所	姓 名	山 林 面 積	造 林 實 績
計		4 名		
京 畿	서울 城北區 貞陵 4 洞 266-449	李 圭 鉉	238ha	152ha
全 南	全南 寶城郡 文德面 龍岩里	朴 炯 卓	244 "	243 "
慶 北	서울 城北區 論峴洞 197	具 滋 昌	384 "	315 "
慶 南	慶南 馬山市 半月洞 63-1	柳 衡 烈	217 "	182 "

○ 內務部長官 表彰 對象者

道 別	篤林家區分	姓 名	年 令	林 野 所 在 地	所 有 山 林 面 積	造 林 實 績
京 畿	優 秀	朴 贊 世	54	京畿漣川, 漣川, 玉山	146 ha	122ha
京 畿	自 營	太 周 成	57	京畿加平, 北面	93 "	60 "
江 原	自 營	韓 昇 龍	56	江原橫城, 安興, 屯內	247 "	230 "
忠 北	自 營	申 哲 雨	68	忠北淸源, 琅城, 官井	103 "	77 "
忠 南	優 秀	崔 卿 夏	75	忠南燕岐, 錦南	110 "	53 "
全 北	自 營	李 春 求	60	全北鎭安, 程川, 鳳鶴里	279 "	125 "
慶 北	模 範	朴 泰 浩	58	慶北英陽, 立岩外 6 個面	456 "	178 "

87년도 山林事業用 種苗價格 決定

山林廳에서는 지난 12.3 '86年度産('87年度造林用) 山林事業用 種苗價格을 種苗價格 審議委員會 會議을 거쳐 決定 告示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成苗의 경우 잣나무 3年生 千本當 71,700 원, 낙엽송 2年生 千本當 58,400 원이며, 種子의 경우 낙엽송 kg當 25,869 원, 리기테다 kg當 22,113 원으로서 이는 작년도 대비平均 3.2% 引上된 價格인데 引上된 主要因은 勞賃上昇에 基因된 것으로 樹種別價格은 別表와 같다.(資料 : 山林廳 公報官室)

1986年度産 山林事業用 種苗價格

○ 成 苗

(원 / 千本)

樹 種	苗 齡	'85 産 價 格	'86 産 價 格	引 上 率	備 考
강 송	1 - 1	36,700	37,800	3.0	
잣 나 무	2 - 1	69,500	71,700	3.2	
	2 - 2	78,600	81,100	3.2	
젓 나 무	2 - 3	-	106,200	-	
	2 - 3 - 3	-	819,000	-	
낙 엽 송	1 - 1	56,600	58,400	3.2	
삼 나 무	1 - 1	66,700	68,800	3.1	
	1 - 1 - 1	102,800	106,000	3.1	
편 백	1 - 1	65,300	68,100	4.3	
	1 - 1 - 1	101,900	105,100	3.1	
해 송	1 - 1	36,100	37,500	3.9	
리 기 다	1 - 0	18,500	19,100	3.2	
	1 - 1	32,100	33,400	4.0	
리 기 테 다	1 - 0	18,500	19,100	3.2	
스트로브잣나무	2 - 1	79,500	81,800	2.9	
상수리나무	1 - 0	42,200	44,600	5.7	
자작나무	1 - 0	50,900	52,500	3.1	
이태리포플러	C 1 / 1	166,600	171,900	3.2	
현 사 시	C 1 / 1	178,100	183,100	2.8	
오 동 나 무	1 - 0 치상	181,200	181,300	0.1	

※ 지난 10월에 日本林業視察을 하신 會員에게는 “日本林業視察報告書”와 記念寫眞帖을 發送 하였습니다. 現在까지 受領못하신 會員은 本會로 연락 바랍니다.

○ 種子

(원 / kg)

樹 種	基 準 品 質		'85 産 價 格	'86 産 價 格	引 上 率	備 考
	純 量 率	發 芽 率				
강 송	%以上 93.4	%以上 87.4	11,439	11,689	2.2	
잣 나 무	98.7	63.8	4,562	4,994	9.5	
젓 나 무	92.8	25.1	3,098	3,180	2.6	
낙 엽 송	90.2	39.7	25,229	25,869	2.5	
삼 나 무	90.0	32.3	15,209	15,634	2.8	
편 백	90.0	12.1	19,807	20,361	2.8	
해 송	95.7	91.7	10,483	10,688	2.0	
리 기 다	90.6	84.7	9,285	9,466	1.9	
리 기 테 다	74.2	85.3	21,540	22,113	2.7	
상수리 나무	89.2	57.4	1,067	964	△ 9.7	
자작 나무	78.5	14.4	13,314	13,636	2.4	
물푸레 나무	93.3	46.7	3,027	3,104	2.5	
오동 나무	78.7	67.2	21,853	22,550	3.2	
밤 나 무	96.0	60.6	452	665	47.1	

외용진통, 소염제
바이겔 크림



“Indomethacin 의 강력한 Prostaglandin
합성 억제작용으로 인한 소염 · 진통 효과는
Piroxicam 이나 Naproxen 제제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草堂藥品工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종로구 종로5가 36-1 전화 : 741-1540, 743-6161/2
출장소 : 부산 (051) 66-3747 대전 (042) 253-8580
대구 (053) 756-1833 전주 (0652) 75-8064
마산 (0551) 43-1923 광주 (062) 232-0701
원주 (0371) 42-8204

林業界 消息

○ 孫宗鎬 山聯中央會長은 지난 11.15 任期滿了로 退任

- 山聯中央會長에 宋東燮氏 就任: 孫宗鎬 前山聯會長 後任에 前警察大學長 宋東燮氏가 12.1자로 就任.
- 山聯中央會 定期總會: 山聯中央會는 지난 12.5(金) 잠실에 있는 交通會館에서 第24次 定期總會를 갖고 '86 事業報告와 '87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議決하고 優秀 山林組合에 대한 表彰도 하였다.
- 山林副產物 生産業體 懇談會: 山林廳은 지난 11月 林産業界 代表者 懇談會를 가진데 이어 이번에는 石材, 밤, 표고, 송이등 副產物 生産業界 代表者 懇談會를 12.9 開催하고 光陵 林試中部支場 등 現地視察도 行하였다.
- 故 高濟鎬博士 서울시文化賞 受賞 서울시는 지난 12月 11日 第35回 서울시文化賞 受賞者 10名을 選定 發表하였는데 自然科學部門에는 故 高濟鎬 前林業試驗場 병충部長이 受賞하게 되었다.
- 林產物輸出 有功者表彰: 山林廳은 12.23 林產物輸出 有功者 業界 6名, 山林組合 2名, 公務員 4名에 대한 感謝狀 및 表彰이 있을 豫定
- 林友會 忘年會: 12.18 12:00 場所는 林友會에 集合하면 案内될 것이며 參加會費는 5,000원
- 營林署 丹陽保護區新設: 山林廳은 榮州管理所管轄로 丹陽保護區를 新設하고 지난 12.9 現地에서 開廳式을 갖임.

結 婚

○ 本會 副會長 趙大奎 (慶北 店村) 氏의 次男 鋪一 君이 12.12. 店村市 하나나禮式場에서 華燭

< 會費를 納付하신분 > (10.11 ~ 12:10)

한 영 석 회 장	1,000,000 원	이 호 덕 강원지부장	200,000
(누계 3,000,000)		김 남 주 대 의 원	30,000
조 대 규 부회장	1,000,000 원	이 수 영 이 사	150,000
구 자 창 이 사	200,000 원	임 남 수	20,000
왕 규 익	20,000 원	이 종 관 이 사	200,000
김 용 환 대의원	30,000 원	염 동 은	20,000
김 환 조	20,000 원	김 용 구 이 사	200,000
문 상 익 이 사	200,000 원	김 규 락	20,000
김 진 수 지도위원	50,000 원	정 기 흥 대 의 원	30,000
장 창 연	20,000 원	계	3,430,000
박 동 락	20,000 원		